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번역본 비교\*

유 미 향 · 박 정 윤 · 이 영 훈\*\*  
(고려대)

## 1. 서론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 *Le Deuxième sexe*』은 서구에서 ‘페미니즘의 경전(feminist bible / bible of feminism)’<sup>1)</sup>으로 일컬어지는 중요한 작품이다. 프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00103).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erasme@korea.ac.kr

1) ‘페미니즘의 경전’이라는 표현은 1986년 보부아르가 사망한 후 영미 언론에서 그의 대표작인 『제2의 성』에 붙인 것으로, 이후 영미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제2의 성』에 대해 즐겨 사용되어 왔다. 물론, 『제2의 성』에 대한 이같은 찬사는 미국 2세대 여성 운동의 시초가 된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이 자신의 『여성의 신비 *The Feminine Mystique*』(1963)를 보부아르에게 헌정함으로써 얻어진 영광으로 추정된다.

랑스에서 1949년에 출간된 본 작품은 한국에서 1955년 이용호에 의해 초역이 되었는데 이는 독일(1951), 미국(1953), 일본(1953), 아르헨티나(1954)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빨리 번역된 결과이다. 물론, 이용호의 1955년 번역은 원저의 제2권 1부만을 번역한 부분 역으로 이후 1973년 조홍식에 의해 처음으로 완역본이 출간되었으며, 2009년까지 두 차례 전권 재번역이 이루어졌다. 서구와 일본에서는 단 두 차례만 번역·출판된 『제2의 성』이 유독 한국에서는 세 번의 완역을 포함하여 총 13차례에 걸쳐 재번역이 이루어진 사실<sup>2)</sup>은 번역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문제이며, 비록 부분역이지만 이용호의 초역이 매우 일찍 이루어진 점 또한 『제2의 성』의 수용사면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같은 번역수용의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성학계 또는 페미니스트들에게서 『제2의 성』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찾아보기 힘들어 왔다는 점은 하나의 큰 의문으로 남는다. 물론, 『제2의 성』에 관한 국내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이 매우 드물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실존주의나 여성학의 관점에서 『제2의 성』의 의의를 논한 연구도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제2의 성』이 서구나 일본에서처럼 과거의 국내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 여성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언급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최근 변광배의 『제2의 성 : 여성학 백과사전』(2007)과 조혜란의 석사학위논문 「『제2의 성 *Le Deuxiè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2012)의 발표로 국내의 『제2의 성』 수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이 점에서 『제2의 성』의 번역 양상과 국내 수용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비로소 시작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영미권과 일본에서는 남성 번역가에 의해 이루어진 초역 『제2의 성』에 대해 열띤 비판과 논쟁<sup>3)</sup>이 벌어졌고, 그 결과 1997년 일본에서 그리고 2009년 미국에서 여성 번역가에 의한 재번역이 발표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용호의 초역, 조홍식의 첫 완역 이후 이들 남성 번역가의 작품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나 반성 없이 1995년 강명희, 2009년 이희영에 의해 여성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이는 이들 여성 번역가의 역자서문 또는 후기에 앞선 번역 특히 남성번역가에

2) 조혜란 (2012), 45-58.

3) 영미권과 일본에서의 『제2의 성』재번역 논쟁에 관해서는 Anna Bogic (2009)와 조혜란(2012)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루어진 작업과 그 성과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 표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구 번역학계에서 번역과 젠더, 즉 성차에 대한 관심은 번역에 대한 문화적 시각의 도입과 더불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셰리 사이몬(Sherry Simon)의 *Gender in Translation* (1996)과 루이즈 폰 플로토우(Luise von Flotow)의 *Translation and gender* (1997)가 그 구체적인 첫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21세기 초부터 일련의 저작들과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며, 각종 번역학 백과사전에 젠더 관련 항목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페미니스트 번역학(feminist translatology)의 여러 연구 주제들 가운데 『제2의 성』 번역과 관련하여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저자와 번역자의 젠더적 특성 간의 관계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 “남성은 여성의 텍스트를 또는 여성은 남성의 텍스트를 번역할 수 있는가? 젠더 관련 쟁점들이 남성 또는 여성 작가와 번역가들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sup>4)</sup>

다시 말해, 보부아르라는 여성이 쓴 『제2의 성』이 처음에는 남성 번역가들에 의해 번역되었고 다시 이에 여성 번역가들에 의해 재번역이 출간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남성 번역가의 번역과 여성 번역가의 『제2의 성』 원작에 대한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번역에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제2의 성』, 보다 정확하게 이용호가 초역한 제2권 1부에 등장하는 여성의 성적 표현(sexuality)에 대한 이용호의 1955년 번역과 이회영의 2009년 최신 번역을 비교하고자 한다.

## 2. 번역본 비교를 위한 전제

김효중이 ‘번역학과 여성’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논문(1984)을 발표한 이래 국내에는 오랜 기간 후속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번역과 젠더의 문제를 이론적 연구들(김신좌 2003, 이승희 2004, 박선주

4) Luise von Flotow (2010), 132.

2012, 이상빈 2012), 서구 및 동양에서의 번역과 젠더에 대한 역사적 연구들(이종숙 2002; 김진아 2011, 2012)과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어 혹은 여성 번역가의 문체를 다루는 연구들(박선자 2001; 정혜옥 2006; 김동미 2007, 2009, 2010; 박미정 2012; 서유정 2012; 이상원 2012a, 2012b)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의 텍스트가 갖고 있는 차이를 고찰하거나 혹은 번역가가 갖고 있는 젠더적 관점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는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번역가의 성별이 번역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을 비교하기 위해 원본 텍스트 속에 있는 여성에 대한 표현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표현, 여성의 성행위 표현 그리고 여성 동성애 표현을 대상으로 두 번역 텍스트를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여성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을 추가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2의 성』의 제2권 1부를 번역상의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2권 1부는 여성의 유년기부터 성의 입문에 이르는 과정과 여성 간의 동성애를 통해 여성의 성적 형성과정을 다룬 부분으로 “남성들이 우월권을 쥐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유년기 소녀 시절, 성숙기와 노년기를 거치면서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sup>5)</sup>을 구체적인 사례들과 더불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여성의 신체 및 성적 행동과 관련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며 이에 대한 번역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한편,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제2의 성』이 번역·출판된 계기가 제2권 1부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사실, 미국에서 『제2의 성』이 1953년 Knop 출판사에서 출간된 무렵 이 책은 하블록 엘리스(Havelock Ellis)와 알프레드 킨제이(Alfred Kinsey)의 책처럼 성 의학서 내지 일종의 ‘섹스 매뉴얼’로 소개되었다<sup>6)</sup>. 특히 영어 본 초역자 하워드 파슬리(Howard Parshley)는 동물학자로 이시류와 같은 곤충의 행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였고 인간의 생식에 관한 저술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

5) 변광배 (2007) 105-106.

6) Anna Bogic (2009) 7-16.

성운동이나 실존주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할 정도였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제2의 성』의 번역과 수용과정은 심히 왜곡되어 원작의 순서와 상관없이 제2권부터 번역·출판되었고<sup>7)</sup>, 한국어 초역자인 이용호는 자신의 약력에서 정신분석 전문가를 자임할 뿐만 아니라, 『제2의 성』 초역이 나온 1955년에 프랑크 카프리오(Frank Caprio)의 성 의학서들<sup>8)</sup>을 동시 출간하였다. 이처럼 왜곡된 초기 수용과정을 거친 『제2의 성』의 한국어 초역과 최신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적 표현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3. 텍스트 분석

#### 3.1 여성의 신체 표현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주목할 점은 여성의 신체 표현에 관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신체 표현은 원본 텍스트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신체 표현은 작가의 젠더적 관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에 해당하며,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가 지닌 태도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신체 표현을 중심으로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해보아야 한다.

이용호 번역은 주로 여성의 신체 표현을 직접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희영 번역은 여성의 신체 표현을 매우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시대적 차이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술들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이용호 번역가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여성 신체 표현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 이용호의 1955년 초역은 역자 후기에는 파솔리의 영역을 중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쿠시마 료이치(生島遼一)의 1954년 일역 제1권을 중역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혜란 (2012) 71-83 참고.

8) 『완전한 여성 *The sexually adequate female*』, 『완전한 남성 *The sexually adequate male*』.

첫째, 이용호 번역은 여성의 신체 표현을 낯선 전문 용어, 즉 외래어 발음을 그대로 음차(音差)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본 텍스트는 여성 신체에 대한 표현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는 부분이 빈번하다. 이용호 번역은 원본 텍스트에 있는 여성 신체에 대한 묘사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호 번역은 전문 의학 용어인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발음을 음차 표현한 기술이 많다.

예문1) (...) elle s'exprime entre autres par l'opposition de deux organes :  
le clitoris et le vagin. - p. 146

이용호 역) 그것은 특히 클리토리스(陰核)와 膺이라고 하는 두 器官의 對峙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다. - p. 190

이희영 역) 그것은 특히 음핵과 질이라는 두 기관의 대치를 통해 표현된다. - p. 471

예문2) Le coït a un but physiologique précis ; par l'éjaculation le mâle se décharge de sécrétions qui lui pésent ; après le rut, il obtient une complète délivrance qui s'accompagne à coup sûr de plaisir. Etcertes, le plaisir n'était pas eulvisé; il est suivi souvent d'une déception : le besoin a disparu plutôt qu'il ne s'est assouvi.

- p. 146

이용호 역) 《코이스트》coitus는 하나의 명료한 生理的 目的을 가지고 있으며, 男性은 射精에 의해 그를 압박하고 있던 分泌物을 쏟아 낸다. 發情한 후 그는 완전한 解放의 希望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에는 확실히 快樂이 따른다. 물론 快樂만이 目的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 후에는 흔히 幻滅이 온다. 欲求가 채워지자 이제는 그 必要는 없어졌기 때문이다. - p. 190

이희영 역) 성교에는 명백한 생리적 목적이 있으며, 남성은 사정을 통해 자기를 압박하던 분비물을 방출한다. 성적으로 흥분한 다음, 남자는 확실히 쾌감을 수반하는 완전한 해방을 얻는다. 물론 쾌락만이 그 목적은 아니다. 쾌락 다음에는 흔히 환멸이 따른다. 욕구가 충족됐다기보다 그저 사라졌기 때문이다. - p. 470

예문1), 예문2)에서 제시한 사례는 이용호 번역 텍스트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용호가 음차를 하는 사례는 여성의 신체 표현 이외의 성적(性的) 표현의 번역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헬러스(13), 마스터베이슨(25, 109), 오나니즘(25)’ 등과 같이 외래어 음차로 표현한 예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이희영 번역은 ‘남근(346, 413), 자위 행위(354), 노출의 욕구(354)’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둘째, 이용호 번역은 여성 신체의 표현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경우가 많다. 즉 이는 원본 텍스트 속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여성 신체 표현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번역 과정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직접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해당 단어를 번역하지 않거나 단락 속에서 해당 문장 전체를 삭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번역자의 이러한 회피 전략은 금기에 대한 번역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50년이라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번역자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용호의 이러한 번역 방식은 이희영 번역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희영 번역은 이용호 번역에서 삭제, 은폐된 단어나 문장을 매우 대담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부가적 설명이 드러나는 부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용호 번역과 이희영 번역의 이러한 차이는 『제2의 성』을 번역하는 데 있어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의 남녀 역할이 전도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문3) Mme Z.W. est également complètement frigide. Le grand trapumatisme de la nuit de nocés fut que son mari lui aurait dit après le premier coït : « Tu as un grand trou, tu m’a strompé. » - p. 160

이용호 역) Z.W. 夫人도 또한 완전한 冷感症이다. 結婚 第一 夜의 커다란 外傷은 남편이 그여자에게 최초의 ...의 후에 『당신은 굉장히 크군. 나를 속였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 p. 209

이희영 역) Z.W.부인도 완전한 불감증이였다. 첫날밤의 정신적 외상은 컸다. 남편이 첫 성교를 하고 난 뒤에, “구멍이 정말 크군. 나를 속인 거야?”라고 투덜댔다는 것이다. - p. 484

예문4) Un professeur de collège américain me disait que ses élèves

cessaient d'être vierges bien avant de devenir femmes ; leurs partenaires les respectent trop pour effaroucher leur pudeur, ils sont trop jeunes et eux-mêmes trop pudibonds pour éveiller en elles aucun démon. - p. 173

이용호 역) 어떤 미국의 高敎의 先生은 나에게 그 곳의 學生들은 女子가 되기 훨씬 전에 處女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젊은處女의 상대는 예의를 지키면서 處女들의 羞恥心을 공연히 해치려고 하지 않고 그여자들 속에 魔力을 일깨우기에는 그들은 너무 젊고 그들 자신이 너무 수줍다. - p. 224

이희영 역) 미국의 어떤 중학교 선생이 내게 말하기를, 그곳 학생들은 여자가 되기 훨씬 이전에 처녀성을 상실한다고 했다. 그녀들의 마음속에 마성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 젊은 상대 남성들은, 예의를 지키므로 처녀들의 수치심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또 그들 자신이 너무 부끄러움을 탄다. - p. 496

예문3), 예문4)는 원본 텍스트의 내용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서 이용호 번역이 부분 삭제된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삭제 방식은 단어 또는 구 단위의 삭제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서는 문단 전체의 삭제까지도 발견된다. 이용호 번역은 ‘광징히 크군’, ‘처녀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반면에, 이희영 번역은 ‘구멍이 크군’, ‘처녀성을 상실한다’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구체적인 표현을 위해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설명을 추가한 부분이 많은데, 작가의 지나친 관점 개입은 오히려 원본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번역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이용호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되, 여성 신체 표현과 관련된 금기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삭제가 눈에 띈다.

예문5) Tandis que l'homme 《 bande 》, la femme 《 mouille 》 ; il y a dans le mot même des souvenirs infantiles de lit mouillé. - p. 165

이용호 역) 남자가 《 뻐뻐해지는 》는 반면에 여자는 《 젖는다 》. 이 말 자체에 젖은 잠자리나 오줌을 싸서 야단을 맞았던 幼時의 追憶이 잠겨 있다. - p. 215

이희영 역) 남자는 ‘발기하는’데 반하여 여자는 ‘적셔진다’는 그 말 자체에, 침대를 적시거나 소변을 잘못 보아 책망 들던 어린시절의 추억이 깃들

어 있다. - p. 488

예문5)는 여성의 신체 표현뿐만 아니라 남성과 관련된 표현에서도 이용호 번역이 갖고 있는 회피 전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동사 ‘bander’를 이용호 번역에서는 ‘뺏뺏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희영 번역에서는 보다 직접적 표현인 ‘발기하다’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이용호 번역은 원본 텍스트의 특정 표현에 대해서는 삭제, 축소, 은폐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여성의 성행위 표현

여성의 신체를 다루는 부분 외에 여성의 성행위 표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이 매우 크게 드러난다. 원본 텍스트는 성(性)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등장하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용호 번역은 앞서 언급한 여성 신체 표현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을 우회적이거나 간접적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문에 있는 해당 단어가 문맥상 성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직접적인 단어는 삭제하기도 하고 ‘사랑의 행위’, ‘귀염을 당하다’, ‘즐긴다’ 등의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희영은 해당 단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우회적 표현보다는 ‘성적 행위, 애무, 발기, 오르가즘을 느낀다’ 등의 직접적이면서도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문1) Pour l'amant, l'acte amoureux est donc conquête et victoire. Si, chez un autre homme, l'érection apparaît souvent comme une dérisoire parodie de l'acte volontaire, chacun cependant la considère en son propre cas avec quelque vanité. - p. 150

이용호 역) 男子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사랑의 行爲는 征服이며 勝利인 것이다. 他人의 경우에는 勃起를 意志的 行爲의 어리석은 複寫처럼 여기는 수는 있어도 막상 자기의 경우가 되면 男子는 누구든지 제 勃起를 자랑스럽게 바라본다. - p. 195

이희영 역) 요컨대 남자에게 성행위는 정복이며 승리이다. 다른 사람의 발기는 자발적인 행위의 시시한 촌극처럼 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막상 자기의 경우가 되면 남자는 누구나 자기의 발기를 자랑스럽게 바라본다. - p. 473

예문2) Ces pucelles déflorées demeurent des jeunes filles ; et il est probable que le jour où elles se trouveront aux prises avec un homme sensuel et impérieux, elles lui opposeront des résistances virginales. En attendant, elles demeurent encore dans une espèce d'âge ingrat ; les caresses les chatouillent, les baisers parfois les font rire, elles regardent l'amour physique comme un jeu et, si elles ne sont pas en humeur de s'en divertir, les exigences de l'amant leur semblent vite importunes et grossières. - p. 173

이용호 역) 이처럼 하여 處女性을 잃은 處女는 여전히 젊은 處女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여자들이 肉感的인 심한 氣勢를 가진 男子와 상대하는 立場이 되었을 때 그여자는 또 處女 같은 抵抗을 피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다. 우선 그때까지 그여자들은 아직 일종의 껍 유치한 年齡期에 머물러 있다. 귀염을 당하면 간지럽고 키스는 가끔 그여자들을 웃킨다. 肉體的인 사랑을 하나의 遊戯처럼 보며 만일 자기들이 그것을 즐길 생각이 나지 않으면 戀人の 강한 要求가 그여자들에게는 귀찮고 천하게 보인다. - p. 225

이희영 역) 이런 식으로 처녀성을 잃은 여성을 변함없이 젊은 처녀 그대로이다. 그녀들은 육감적이고 격렬한 기력을 내뿜는 남자와 상대하게 되었을 때 처녀와 같은 저항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그녀들은 아직 미숙한 연령에 머물러 있다. 애무는 그녀들을 간지럽게 하고, 키스는 그녀들에게 웃음을 자아낼 때도 있다. 그녀들은 육체적인 사랑을 하나의 유희로 여기고, 자기들이 그것을 즐길 생각이 없을 때는 애인의 욕구를 귀찮고 야비한 것으로 치부한다. - p. 497

예문3) Même lorsque la femme surmonte ses résistances et connaît au

bout d'un temps, plus ou moins long, le plaisir vaginal, toutes les difficultés ne sont pas abolies : car le rythme de sa sexualité et celui de la sexualité mâle ne coïncident pas. Elle est beaucoup plus lente à jouir que l'homme. - p. 178

이용호 역) 女性이 자기의 抵抗을 극복하여 어느 期間이 지난 후에 膾快感을 알았댔자 이것으로 모든 困難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그여자의 性欲의 리듬과 男性의 그것과는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다. 그여자는 남성보다도 훨씬 늦게 즐긴다. - p. 232

이희영 역) 여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 저항을 극복하고 질의 쾌감을 알았을 때라도, 그것으로 모든 곤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자 성욕의 리듬과 남자 성욕의 리듬은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오르가슴에 도달하는 것이 훨씬 더 느리다. - p. 501

이상에서 제시한 예들은 의역으로 인한 내용의 축소 및 은폐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로 이용호 번역의 경우 여성의 성행위와 관련된 표현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와 달리 이희영 번역은 성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예문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문4)의 'déflorer'는 '꽃을 꺾다'는 의미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남성이 여성의 순결을 빼앗거나 남성이 여성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la possession'에 대한 이용호 번역은 매우 우회적인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이희영 번역은 '성교'라는 단어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예문4) Mais non. Elle demeure évidemment privée d'orane viril; elle peut déflorer son amie avec la main ou utiliser un pénis artificiel pour mimer la possession; elle n'en est pas moins un castrat. - p. 201.

이용호 역)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여자는 역시, 참다운 남성적 자존심을 가질 수는 없다. 그여자는 여동무로부터 손으로 처녀성을 빼앗는다는가, 남자가 여자를 제 것으로 삼는 동작을 흉내내기 위해, 인공적인 페니스를 사용한다는 일은 가능하다. 허나 그래도 역시, 거세된 자임에는 다름이 없다. - p. 262

이희영 역)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분명 남자의 성기가 없는 것이다. 그녀는 손으로 여자친구의 처녀성을 빼앗거나, 남녀의 성교를 모방하기 위하여 인공 페니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역시 거세된 인간임에 틀림이 없다. - p. 522

둘째, 이용호 번역은 성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삭제된 경우가 많다. 단순히 단어나 문장의 삭제가 아닌 단락 단위의 삭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성의 성 입문기와 여성의 성장 단계를 다루는 부분에서 여성의 성행위가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많다. 원본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노골적인 표현의 경우, 단락 전체가 생략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이희영 번역은 해당 부분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문맥상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기도 한다. 뒤에 이어지는 예는 단어 혹은 구 단위의 삭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즉 원본 텍스트에서 괄호로 표시된 부분이 이용호 번역에서는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문5) son beau-père avait cru remarquer chez son futur gendre un membre en érection(probablement un priape) ; - p. 202

이용호 역) 처녀의 아버지는 미래의 사위에게 발기한 남근이 있는 줄 믿었다. - p. 264

이희영 역) 혼약자의 아버지는 미래의 사위를, 발기하는 남근이 있는 남자로 믿었다(아마 인조 음경이었을 것이다). - p. 523

예문6) Le lendemain j'allai au bureau assez troublée. Il me montra ses mains couvertes d'égratignures que je lui avais faites... Il me demanda de venir le voir plus souvent... Je cédaï, pas très à mon aise mais pourtant pleine de curiosité... Dès qu'il s'approchait de mon sexe je m'arrachais pour retourner à ma place ; mais une fois, plus rusé que moi, il l'emporta sur moi et probablement introduisit son doigt dans mon vagin. Je pleurai de douleur. C'était au mois de juin 1909 et je partis en vacances. J'ai fait une excursion avec mon amie. Deux touristes survinrent. Ils nous invitèrent à les accompagner. Mon compagnon voulut embrasser mon amie, elle lui lança un coup de poing. Il arriva sur moi,

me saisit par-derrière, me plia sur lui, m’embrassa. Je ne résistai pas… Il m’invita à venir avec lui. Je lui donnai la main et nous descendîmes au milieu de la forêt. Il m’embrassa… il embrassa mon sexe à ma grande indignation. Je lui disais : “Comment pouvez-vous faire une cochonnerie pareille?” Il me mit sa verge dans la main… je la caressai… tout d’un coup, il arracha ma main et y jeta un mouchoir pour m’empêcher de voir ce qui se passait… Deux jours plus tard nous allâmes ensemble à Liesing. Dans un pré isolé il retira tout d’un coup son manteau pour le mettre dans l’herbe… Il me jeta par terre de telle façon qu’une de ses jambes était placée entre les miennes. Je ne croyais pas encore au sérieux de la situation. Je le suppliais de me tuer plutôt que de me priver de “ma parure la plus belle”. Il devint très grossier, me dit des gros mots et me menaça de la police. Il plaqua sa main sur ma bouche et introduisit son pénis. Je crus ma dernière heure venue. J’avais la sensation que mon estomac tournait. Quand il eut enfin fini, je commençai à le trouver supportable. Il fut obligé de me relever car je restais étendue. Il couvrit mes yeux et ma figure de baisers. Je ne voyais et n’entendais rien. S’il ne m’avait pas retenue, je serais tombée aveuglément sous les autos… Nous étions tout seuls dans un compartiment de deuxième classe, il ouvrit son pantalon de nouveau pour venir vers moi. Je poussai un cri et courus à travers toute la voiture vite jusqu’au dernier marche-pied… Enfin, il me laissa avec un rire brutal et strident que je n’oublierai jamais en me traitant d’oie stupide qui ne sait pas ce qui est bon. Il me laissa retourner seule à Vienne. Arrivée à Vienne j’allai vite aux W.-C. parce que j’avais senti quelque chose de chaud couler le long de ma cuisse. Effrayée, je vis des traces de sang. Comment dissimuler cela chez moi? Je me couchai le plus tôt possible pour pleurer pendant des heures. Je ressentais toujours la pression sur l’estomac causée par l’enfoncement du pénis. Mon attitude étrange et mon manque d’appétit indiquèrent à ma mère qu’il y avait eu quelque chose. Je lui avouai tout. Elle n’y trouva rien de si terrible… Mon collègue faisait ce qu’il pouvait pour me consoler. Il profita des soirées obscures pour se promener avec moi dans la parc et me caresser sous mes jupes. Je lui permettais ; seulement dès que je sentais mon vagin devenir humide je m’arrachais parce que j’avais affreusement honte. - p. 170, 171

이용호 역) 다음 날 나는 상당히 거북한 氣分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두 손을 보였는데 그것은 내가 할퀴 자욱 투성이었습니다...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好奇心이 가득 차서 승낙했습니다... (생략) - p. 223

이희영 역) 이튿날 나는 꽤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내가 할퀴었다는 상처투성이의 두 손을 펴 보였습니다... 그는 내게 더 자꾸 자기한테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에 가득 차서 승낙했습니다... 그가 내 성기를 더듬으려 하면 나는 뿌리치고 빠져나와 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번은 나보다 더 교활한 그가 덮치더니 자기 손가락을 나의 질 속에 넣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워 울었습니다. 그것은 1909년 6월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휴가차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광객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권유했습니다. 내 상대가 된 남자는 내 친구에게 키스하려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게 다가와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강제로 키스했습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이 가자고 나를 유혹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내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가 나의 성기에 키스했기 때문에 나는 몹시 화가 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는 내 손에 자기 성기를 쥐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애무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나의 손에서 그것을 빼어, 거기서 생기는 일을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손수건을 갖다 대었습니다... 이틀 뒤 우리는 같이 리징으로 갔습니다. 인적이 없는 벌판에서 그는 느닷없이 외투를 벗어 풀밭에 깔았습니다... 그는 나를 쓰러뜨리고는 한쪽 다리를 나의 두 다리 사이에 넣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위험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나의 가장 예쁜 옷’이 벗겨지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우 거칠어져서 야비한 말을 내뱉고 경찰에 알리겠다고 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내 입을 막고 자기 페니스를 집어넣었습니다. 나는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뱃속이 뒤집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일을 다 끝냈을 때, 나는 그 일을 묵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는 내 두 눈과 얼굴을 키스로 덮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나를 부축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장님처럼 넘어져 차에 깔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2등 객실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바지 앞섶을 벌린 채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기차의 마지막 칸까지 도망갔습니다... 결국 그는 짐승

같이 웃으며 나를 가만 놔두었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도 몰랐던 바보 같은 나 자신을 경계하는 의미에서라도, 나는 그 웃음소리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나를 빈에 혼자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빈에 도착하자 허겁지겁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땀가 뜨거운 것이 넓적다리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핏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출까?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자리에 누워 여러 시간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페니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으켜 놓은 압박감을 두고두고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이상스러운 태도와 식욕부진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는 나를 위로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저녁때를 이용해서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나의 스커트 밑을 애무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만 질이 서서히 젖기 시작하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바로 몸을 도사렸습니다. - p. 494, 495

이는 부분적인 생략이 아닌 문단 전체에 대한 생략으로 이용호 번역이 갖고 있는 젠더적 관점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삭제된 부분은 성행위와 관련된 상황묘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생략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남성이 강제적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부분과 여성이 남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 생략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이나 특히 밑줄 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희영 역에서는 원문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으나 이용호 역에서만 생략된 것으로 보아 남성의 변태적 성향이 그려지고 있는 적나라한 성적 표현을 금기시 여겼던 번역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된 부분이기도 하며, 번역자의 젠더적 관점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7) Enfin, il y a un autre facteur qui donne souvent à l'homme un visage hostile et change l'acte sexuel en un grave danger : c'est la menace de l'enfant. Un enfant illégitime est dans la plupart des civilisations un tel handicap social et économique pour la femme non mariée qu'on voit des jeunes filles se suicider quand elles se savent enceintes, et des femmes égorger le nouveau-né ; un pareil risque

constitue un frein sexuel assez puissant pour que beaucoup de jeunes filles observent la chasteté pré-nuptiale exigée par les moeurs. Quand le frein est insuffisant, la jeune fille tout en cédant à l'amant est épouvantée par le terrible danger que celui-ci recèle dans ses flancs. - p. 166

이용호 역) 끝으로 빈번히 男性을 敵對視시키고 性行爲를 중대한 危險으로 變形시키는 또 하나의 原因이 있다. 그것은 애기를 낳는 恐怖다. 보통 어느 文明社會에 있어서도 私生兒는 결혼하지 않은 女子에게 있어서 社會的인 아울러 經濟的인 큰 핸디캡이 되므로 處女가 자기가 妊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自殺하거나 未婚의 어머니가 갖낳은 애기를 窒息시켜 죽이기도 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런 危險이 강력한 性的부레-키의 구실을 맡아 많은 젊은 處女가 風習에 의해 요구되는 純潔을 지키고 있다. 젊은 處女는 戀人에게 몸을 맡기면서 男子가 그 女子의 배 속에 집어넣는 무서운 危險을 겁낸다. - p. 216

이희영 역) 마지막으로 종종 남성에게 적대감의 얼굴을 돌리게 하고, 성행위를 중대한 위협으로 변형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그것은 아기를 낳는다는 공포이다. 보통 어떤 문명사회에서든 사생아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사회적·경제적으로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젊은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자살하거나, 미혼모가 갓난아기를 목졸라 죽이는 일도 있다. 이런 위협이 강력한 성적 제동기의 역할을 해서 대부분 젊은 처녀들은 풍습이 요구하는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다. 제동기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젊은 처녀는 애인에게 몸을 맡기는데, 남자가 자기 뱃속에 투입하는 무서운 위협에 공포를 느낀다. - p. 489

위의 예문 역시 부분적인 생략에 해당한다. 이희영 역에서는 원문의 구문 'un frein sexuel'에 대해 '성적 제동기의 역할'이라 표현하고 바로 아랫부분에 나오는 구문인 'Quand le frein est insuffisant'에서 역시 '제동기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제동기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의 맥락과 연결을 지어보면, 여성이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 처녀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려 하고 있지만 그러한 순결을 지키지 못할 때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을 이용호 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희영 역에서는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이용호 역의 경

우 ‘감추기’ 방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8) (...) le désir de possession avorte faute d'un organe dans lequel s'incarner. Et l'homme refuse le rôle passif. Souvent d'ailleurs les circonstances conduisent la jeune fille à se faire la proie d'un mâle dont les caresses l'émeuvent mais qu'elle n'a plaisir ni à regarder ni à caresser en retour. - p. 154

이용호 역) 所有의慾望은具體化하는器官이 없기 때문에挫折된다. 또한男子는被動的의구실을거부한다. 종종또젊은處女는그環境의 탓으로상대편에게愛撫되던動搖하기는하지만이쪽에서얼굴을바라다볼생각도愛撫를값을생각도나지않는男子의 먹이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수도 있다. - p. 200

이희영 역) 소유의 욕망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좌절되고 만다. 게다가 남자는 수동적 역할을 거부한다. 또 젊은 처녀가 그 환경 탓으로 남자의 먹이가 되어 상대편의 애무에 흥분한다 해도, 그녀 쪽에서 얼굴을 쳐다보며 그를 애무한다면 전혀 즐겁지 않은 경우도 많다. - p. 477

이희영 역의 경우 ‘souvent’ 즉 ‘종종’이라는 의미가 문장 전체를 수반하고 있는 반면 이용호 역의 경우는 앞부분의 내용만을 수반하고 있다. ‘se faire la proie d'un mâle’은 ‘남자의 먹이가 되다’라는 표현을 이희영 역에서는 직역하고 있지만 이용호 역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생략한 채 뒷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avoir plaisir’ : 이희영 역의 경우 ‘즐겁지 않다’고 원본에 가깝게 직역을 하고 있는 반면 이용호 역에서는 즐겁지 않다는 표현 대신 앞부분에서 언급된 ‘남자의 먹이가 되다’라는 표현을 살리고 있다. 원본 중 동사 ‘émouvoir’의 경우 두 역 모두 의미는 맞지만 이희영 역에서와 같이 ‘흥분하다’라고 한 표현은 이용호 역의 ‘동요하다’라는 표현보다 직설적 표현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용호 역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굳이 남성에게 ‘애무를 값다’와 같이 표현을 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느껴지며 전체적으로 번역문의 표현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희영 역에서 ‘그녀 쪽에서 얼굴을 쳐다보며 그를 애무한다면 전혀 즐겁지 않은 경우도 많다’와 같이 번역을 한 것은 원본의 의미와 다소 거리가

있다.

그 외에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묘사하는데 있어 여성의 존재를 바라보는 번역자의 관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즉 남녀의 성적 관계를 다루는 부분에서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번역자의 관점에 따라 여성을 수동적으로 보거나 여성의 역할을 축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이희영 번역은 성적 행위에서 여성의 수동성 혹은 여성의 주체성을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번역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하여 원문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번역자의 젠더적 관점이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문9) La réussite n'exige pas comme le croient quantité d'hommes méticuleux mais simpliste une synchronisation mathématique du plaisir mais l'établissement d'une forme érotique complexe. Beaucoup s'imaginent que 《faire jouir》 une femme est une affaire de temps et de technique, donc de violence ; ils ignorent à quel point la sexualité de la femme est conditionnée par l'ensemble de la situation. - p. 180

이용호 역) 훌륭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小心型이며 單純愚直한 대부분의 男性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快樂의 數學的인 同時性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色情의 복잡한 形態가 오히려 安定함이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女性을 《즐리게 한다》는 것은 時間과 技巧 즉 造作인줄 상상한다. 이런 男子들은 女性의 性慾이 어느 정도까지 그 立場 전체에 의해서 제한 받고 있는가를 모르는 것이다. - p. 235

이희영 역) 성공적인 성교에 필요한 것은, 소심하면서도 단순하고 우직한 많은 남성들이 생각하듯이 쾌락의 수학적 동시성이 아니라, 색정의 복잡한 형태를 낳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이 시간과 기교, 즉 '격렬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남자들은 여자의 성욕이 여자의 상황 전체에 얼마나 좌우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 p. 504

예문10) D'autre part, il est vrai que le rôle sexuel de la femme est en grande partie passif ; mais vivre immédiatement cette situation passive n'est pas plus masochiste que l'agressivité normale du mâle n'est sadique ; la femme peut transcender caresses, trouble, pmâlenmâletration vers son

propre plaisir, maintenant ainsi l'affirmation de sa subjectivité mâle ; elle peut aussi chercher l'union avec l'amant, et se donner à lui, ce qui signifie un dépassement de soi et non une abdication. - p. 184

이용호 역) 다음에 女子의 性的구실은 그 대부분이 被動的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被動的의 立場을 直接的으로 산(生)다는 것은 男子의 正常的인 공격성이 별로 사디즘이 아닌 이상 마소히즘의 이 아니다. 女子는 愛撫·興奮·挿入을 자신의 主體性的의 確立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快樂의 方向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리고 애인과의 굳은 결합 상대편에게 자기를 주기를 요구하는 수도 있다. 이것은 자기포기가 아니라 자기의 超越을 뜻한다. - p. 240

이희영 역) 한편, 여자의 성적 역할이 대부분 수동적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수동적인 입장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남성의 정상적인 공격성이 사디즘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마소히즘적도 아니다. 여자는 애무·흥분·삽입을 자기 자신의 쾌락으로 이끌어 가 초월할 수 있으며, 그 덩어리째 스스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또 애인과의 확실한 결합을 구할 수도 있고, 자기를 상대에게 바칠 수도 있다. 이것은 자기초월을 의미하지, 자기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p. 507, 508

두 개의 예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faire jouir’, ‘se donner’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호는 ‘여성이 즐기다’와 같이 여성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이희영 역에서는 ‘여성을 즐겁게 해주다’와 같이 여성을 피동적인 대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희영 역은 원문의 의도와는 달리 여성을 굳이 피동적인 존재로 번역하였고, 이는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가 각각 다른 시각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se donner’에서 이용호는 남성에게 여성이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이희영은 여성이 남성에게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상으로 보아도 여성을 주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희영 역에서 여성을 좀 더 비하하여 피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본다. 즉 이희영 번역에서 나타난 과장적 표현, 작가의 과도한 개입도 번역 텍스트를 비교할 때 주목할 점이다.

### 3.3. 여성 간의 동성애 표현

여성 동성애와 관련된 기술을 중심으로 두 개의 번역본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여성 번역가가 여성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남성 번역가가 여성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는 원본 텍스트의 작가인 보부아르가 지닌 동성애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이 개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부아르는 동성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n vérité l’homosexualité n’est pas plus une perversion délibérée qu’une malédiction fatale (II, 215).” 즉 동성애는 의식적인 도착도 아니고 숙명적인 저주도 아니며, 이것은 동기가 있고 자유롭게 채택된 태도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용호 번역본과 이희영 번역본은 여성 동성애에 대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용호는 ‘homosexuel’을 ‘성욕도착증자, 성욕 도착증 병자, 성욕도착증자, 동성애자’ 등으로 번역하고 ‘hétérosexuel’을 ‘정상적이다’, ‘정상성욕’으로 번역했다. 여기서 ‘도착(倒錯)’이라는 어휘는 주로 성적(性的) 어휘와 결합되어 본능, 감정 및 덕성의 이상으로 사회도덕에 어그러진 행동을 보이는 일을 일컫는데, 이러한 의미를 일컬을 때에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perversion sexuelle’을 사용한다. hétérosexuel(le)는 homosexuel의 반의어로서 둘 다 의미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로 사용된다. 그러나 작가의 관점과는 달리 번역자의 개입이 상당히 들어간 부분이 있음을 여성 동성애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nversion’에 대한 번역에서 이용호 번역은 ‘도착증(倒錯症)’으로 표현, 이희영은 ‘여성 동성애’로 번역하고 있다. ‘도착증’은 의학 용어로, ‘성적(性的)인 대상이나 행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이상 성욕(性慾)(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한다. 이용호 번역에서는 여성 동성애를 ‘도착증’ 또는 ‘성도착증’으로 번역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며, ‘동성애’와 ‘도착증’, ‘성도착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번역자의 젠더적 관점이 여성 동성애에 대한 표현에 반영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문1) L’absence, ou l’échec, de relations hétérosexuelles les vouera à l’inversion. - p. 208

이용호 역) 이성애관계의 차여, 또한 실패가 이런 여자들은 도착성욕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 p. 272.

이희영 역) 이성애 관계의 부재나 실패가 그녀들을 동성애로 이끌기도 한다. - p. 529

예문2) La femme qui se fait lesbienne parce qu'elle refuse la domination mâle goûte souvent la joie de reconnaître en une autre la même orgueilleuse amazone ; naguère, beaucoup de coupables amours fleurissaient parmi les étudiantes de Sèvres qui vivaient ensemble loin des hommes... - p. 209

이용호 역) 남자의 지배를 꺼려서 동성애자로 된 여자는 다른 여자에게 자기와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강한 아미소-느(남성적인 여성타일)를 찾아내어 기쁨을 느낀다. 남성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공동생활하고 있는 세-뷔르의 여학생 사이에도 변태성연애가 많이 생겼던 것이다. - p. 273.

이희영 역) 남성의 지배를 거부하여 레즈비언이 된 여자는, 다른 여자에게서 자기와 같이 자존심이 강한 '남성적인 여성'을 발견하면 대단한 희열을 느낀다. 지난날 남성들에게서 떨어져 공동생활을 한 세브르의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금단의 연애가 성행했다. - p. 530

제시된 예문은 동성애나 레즈비언에 대한 번역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l'inversion에 대한 번역으로 이용호는 '도착성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희영에서는 '동성애'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의 경우, 이용호는 '동성애자로 된 여자'의 경우 동성애자가 된 것이 여성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여성을 피동적인 존재로 보거나 동성애자를 그 자체로 비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희영 번역은 '레즈비언이 된'이라고 번역하여 이용호와 관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번역가가 갖고 있는 젠더적 관점이 반영된 예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amours'에 대한 번역에서도 두 번역자의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이용호는 '변태성연애'로 번역하고 있고, 반면 이희영은 '금단의 연애'로 번역하고 있다.

예문3) C'est pour la femme une manière parmi d'autres de résoudre les problèmes posés par sa condition en général, par sa situation érotique en particulier. - p. 215

이용호 역) 그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그 일반적 조건, 특히 색정적 입장에 의해서 확정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p. 281

이희영 역) 동성애는 여자에게 그 총체적인 조건, 특히 색정적인 위치에 따라 설정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 p.

536

여성 동성애 부분을 옮기지 않음.

예문4) L'homme même ne desire pas exclusivement la femme; le fait que l'organisme de l'homosexuel male..... - p. 191

이용호 역) 男色者の 生殖器管이 완전히 남성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여자가 남성적인 것만으로서는 반드시 同性愛子일 수 없다는 것도 당연히 생각된다. - p. 250

이희영 역) 애초에 남자도 꼭 여자만을 바라진 않는다. 남색가의 생리기관이 완전히 남성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여자가 남성적이라는 것만으로는 그녀가 동성애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p. 513

두 번역 텍스트를 비교해 보면, 여성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원작자의 의도와 달리 번역자의 젠더적 관점이 개입되어 여성 동성애뿐만 아니라 남성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기술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용호 번역은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문맥과 상관없이 동성애 관련 내용을 삭제한 예도 많다. 제시된 3), 4)는 삭제의 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희영 번역에서 밑줄 친 부분은 실제 이용호 번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 3.4 기타: 여성과 관련된 지시표현

여성의 신체, 여성의 성행위, 여성의 동성애 표현 이외에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성과 관련된 지시 표현이다. 지시 표현은 주로 여성 대명사를 포함하여 여성 지칭어를 의미하는데, 이 역시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최근 국내의 연구에서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 호칭어, 여성 대명사 등을 연구한 사례가 종종 있다(박미정, 2012; 서유정 2012). 원작 텍

스트에서는 여성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특히 여성 대명사가 많이 사용된다. 영어와 달리 프랑스어의 경우 ‘elle’ 또는 ‘elles’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번역으로는 ‘그녀’, ‘그 여자’, ‘그 여자들’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호 번역에서는 ‘젊은 처녀’, ‘늙은 처녀’, ‘어린 처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여성의 연령이나 결혼의 유무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 남성에 대한 표현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남성의 경우는 그, 신사, 그 남자, 그 남편 등으로만 번역되는 반면 여성에 대한 표현은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집아이, 어린 소녀, 젊은 처녀, 늙은 부인 등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이용호 번역에서 특히 돋보이는 점이다.

예문1) mais toute adolescente redoute la pénération, la domination masculine. - p. 193

이용호 역) 그러나 사춘기의 젊은 처녀는 전부 삽입이나 남성의 지배를 두려워한다. - p. 252

이희영 역) 그러나 사춘기 처녀들은 누구나 남성의 성기 삽입이나 지배를 두려워한다. - p. 515

예문2) « Je serai lieutenant et, si Dieu me prête vie, maréchal. » Elle rêvait souvent qu'elle montait à cheval et sortait de la ville à la tête d'une armée. Très intelligente, elle fut malheureuse d'être transférée de l'école normale dans un lycée, elle aviat peur de devenir efféminée. - p. 196

이용호 역) “나는 中尉가 된다. 하느님이 오래 살게 해주시면, 元帥가 된다.” 그여자는 곧잘 말을 타고 軍隊의 先頭에 서서 마을을 나가는 場面을 꿈꾸었다. 꾀 총명한 處女이며, 師範學校에서 女學校로 전학된 것을 슬퍼하고 있었다. 女子처럼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 p. 256

이희영 역) ‘나는 중위가 될 거야. 그리고 신이 오래 살게 해 준다면 장군이 될 거야.’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말을 타고 군단을 이끌며 시외로 나가는 꿈을 자주 꾸었다. 지극히 총명한 그녀는 사범학교에서 여학교로 옮기게 된 것을 불행하게 여겼고, 자기가 여자다워질까 봐 걱정했다. - p. 518

예문3) <<Je serai lieutenant et, si Dieu me prête vie, maréchal. >> Elle rêvait souvent qu'elle montait à cheval et sortait de la ville à la tête d'une armée. Très intelligente, elle fut malheureuse d'être transférée de l'école normale dans un lycée, elle aviat peur de devenir efféminée. - p. 196

이용호 역) “나는 中尉가 된다. 하느님이 오래 살게 해주시면, 元帥가 된다.” 그녀는 곧잘 말을 타고 軍隊의 先頭에 서서 마을을 나가는 場面을 꿈꾸었다. 꾀 총명한 處女이며, 師範學校에서 女學校로 전학된 것을 슬퍼하고 있었다. 女子처럼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 p. 256

이희영 역) ‘나는 중위가 될 거야. 그리고 신이 오래 살게 해 준다면 장군이 될 거야.’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말을 타고 군단을 이끌며 시외로 나가는 꿈을 자주 꾸었다. 지극히 총명한 그녀는 사범학교에서 여학교로 옮기게 된 것을 불행하게 여겼고, 자기가 여자다워질까 봐 걱정했다. - p. 518

제시된 예에서처럼 ‘elle 또는 elles’가 이용호 번역에서는 매우 다차원적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이희영 번역에서는 ‘그녀’라는 단순한 표현만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이는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지시 대명사 이외에 다른 표현에서는 이와 유사한 태도가 나타난다.

예문4) il en résulte l'apparition d'individus intermédiaires entre les mâles et les femelles. Certains hommes revêtent une apparence féminine parce que la maturation de leurs organes virils est tardive : ainsi voit-on parfois des filles - en particulier des sportives - se changer en garçon. - p. 190

이용호 역) 그러나 그 方向은 胎兒發達의 도중에 어긋나는 수도 있다. 그리하여 男性과 女性의 中間的인 個體가 나타나게 된다. 어떤 종류의 男子는 男性器官의 發達이 늦으므로, 女子와 같은 外觀을 가지고 있다. 處女가-특히 스포츠를 좋아하는-男子로 도중에 변하는 예는 흔히 볼 수 있다. - p. 248

이희영 역) 그러나 그 방향은 태아가 성장하는 도중에 빗나가는 수도 있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의 중간적인 개체가 나타나게 된다. 어떤 남자는 남성기관의 발달이 느린 탓으로 외모가 마치 어린 소녀, 특히 스포츠를 즐

기는 소녀가 도중에 남자로 변하는 예도 있다. - p. 512-513

예문5) Comme une enfant plaintive et craintive et malade.... - p. 206

이용호 역) 울보이며, 겁쟁이고 마음이 여린 병든 계집 아이처럼. - p. 270

이희영 역) 울보에다 겁 많고 마음 약한, 병에 지친 소녀처럼. - p. 528

원본 텍스트에서 ‘des filles’는 뒤에 오는 ‘garçon’의 반의어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용호 번역에서는 이를 ‘處女’로 표현하였으며, 이희영 번역에서는 ‘소녀’로 제기하고 있다. 두 번역 모두 ‘garçon’에 대해서는 ‘남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une enfant’의 번역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이용호 번역에서는 ‘계집 아이’로, 이희영 번역에서는 ‘소녀’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호 번역은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에서는 다차원적인 번역어가 텍스트 속에 드러남을 알 수가 있다.

#### 4. 분석 결과

외국여성 작가의 텍스트가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성별에 따라 각각 어떤 양상으로 번역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남성 번역자와 여성 번역자가 갖고 있는 젠더적 관점에 따라 번역 대상에 대한 태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과 관련된 표현을 중심으로 번역자의 젠더적 관점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성의 신체, 여성의 성행위, 여성 동성애 등을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지시 표현을 살펴보았다. 남성 번역자와 여성 번역자의 텍스트는 각각 여성과 관련된 표현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과 관련된 표현에서 은폐를 위한 의도적 축소나 삭제가 있다. 이용호 번역은 은폐의 전략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단어의 누락과 삭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단순히 단어를 누락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단락 전체가 삭제된 예도 있었다. 1950년이라는 번역 시대의 문체를 넘어서 남성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이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희영

번역은 구체적인 묘사를 위해 과장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어 번역 상의 오류가 눈에 띄기도 한다.

둘째, 이영호 번역은 축소, 은폐 이외에도 문맥적인 고려보다는 독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하기를 피하는 의도적 거리두기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원작자의 의도보다는 번역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번역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영호 번역본은 성적인 표현이나 육체적인 관계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우회적,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전문 용어나 외국어 발음을 그대로 음차표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희영 번역은 이영호 번역과는 달리 성적 표현과 관련된 부분을 직설적, 적극적인 태도로 묘사하고 있다. 즉 사회적 통념에 따른 남녀의 행태가 번역자 사이에서는 전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호 번역은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바라보거나 묘사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두 번역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번역 텍스트 속에 작가의 젠더적 관점이 적극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영호 번역이 갖고 있는 은폐, 축소, 삭제 등을 지나치게 의식한 이희영 번역의 경우, 추가적 설명이나 과장된 묘사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해당 텍스트에 대한 번역가들의 남녀 역할이 전도된 예라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논문은 『제2의 성』이란 외국여성 작가의 작품을 한국어로 옮긴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이 번역 텍스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최근 번역과 젠더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으나 번역 텍스트를 중심으로 젠더적 관점과 연결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는 매우 드물다. 번역은 문화적 산물이며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번역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번역자가 지닌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번역자의 성별이 번역 텍스트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남성 번역가와 여성 번역가의 젠더적 관점이 번역 텍스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외국 여성의 작품을 대상으로 두 번역본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젠더적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본 논문은 『제2의 성』의 국내 번역·수용에 관한 일련의 연구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연구계획은 『제2의 성』의 국내 번역본들에 대한 비교 고찰과 『제2의 성』의 국내 출판번역사, 『제2의 성』에 대한 국내 여성(학)계의 수용사 등 외에도 『제2의 성』의 초역자인 이용호에 대한 번역 사회학적 탐구를 포함한다. 사실, 이용호는 『제2의 성』 초역 외에도 1950년대 말 국내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입문』, 『꿈의 해석』 등을 처음 번역 소개한 바 있으며, 지그문트 프로이트, 에리히 프롬, 칼 메닝거 등 정신분석 관련 서적들을 대거 번역한 전문번역가이자 백조출판사의 공동 발행인으로 국내 번역출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는 국내의 출판·번역장(champ traductionnel)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며, 우리는 이때에 출판과 번역을 겸한 출판번역가(traducteur-éditeur)와 대학에 적을 둔 강단번역가(traducteur-universitaire)의 탄생을 목도하게 된다. 이 점에서 형성과정에 놓인 한국의 출판번역장 내에서 번역가 이용호의 학력, 경력 등 사회적 이력, 즉 아비투스(a)가 이용호의 번역대상 작품의 선택과 그에 대한 태도, 번역전략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1. 연구서 및 학술논문

- 김동미 (2007) 「문학작품의 여성 번역가 문체 연구 - 화용 통사론적 특징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8(1): 37-60.
- 김동미 (2009)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 번역가’ 문체 연구」, 『번역학연구』 10(1): 7-32.
- 김동미 (2010) 「문학작품 영한번역문에 나타나는 여성 문체 연구 - 한자어 사용」, 『번역학연구』 11(1): 73-95.

- 김신좌 (2003) 「번역과 사회언어학적 개념으로서의 젠더」,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5(2): 79-99.
- 김진아 (2011) 「중국 근대 신청년 잡지 속의 페미니즘 번역 작품」, 『번역학연구』 12(3): 33-53.
- 김진아 (2012) 「중국에서의 번역의 지위 및 페미니즘 번역이론의 발전」, 『통번역학연구』 16(2): 19-37.
- 김효중 (1984) 「번역학과 여성」, 『여성문제연구』 13: 179-89.
- 민현식 (1995)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34: 7-64.
- 박미정 (2012) 「필벌 『대지』의 여성지시어 번역 양상 고찰 - 한국어번역과 일본어번역 비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3): 1-22.
- 박선자 (2001) 「우리말 여성 기호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여성학연구』 11(1): 119-47.
- 박선주 (2012) 「(부)적절한 만남 - 번역의 젠더, 젠더의 번역」, 『안과밖』 32: 289-325.
- 변광배, 보부와르 (2007) 『제2의 성 - 여성학 백과사전』, 서울: 살림.
- 서유경 (2012) 「한국 여성어 번역과 문화 간극」, 『통번역학연구』 16(2): 39-67.
- 이상빈 (2012) 「문화번역과 젠더번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6(3): 23-42.
- 이상원 (2012) 「나는 왜 ‘그녀’를 꺼리는가」, 『통역과 번역』 14(1): 193-211.
- 이상원 (2012) 「번역에서 여성어는 존재하는가?」, 『통번역학연구』 16(2): 1-18.
- 이승희 (2004) 「입센의 번역과 성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12: 38-68.
- 이종숙 (2002) 「Gender and Translation in Early Modern England」, 『중세르네상스영문학』 10(2): 169-80.
- 이창숙 (2000) 「國語의 女性語 研究 - 年齡別 女性語의 特徵을 中心으로」, 『강남어문』 10: 211-36.
- 정혜욱 (2006) 「이산여성작가의 번역과 젠더 - 킹스턴의 『여전사』와 에메체타의 『모성의 환희』」, 『영미문화』 6(1): 255-85.
- 조혜란 (2012) 『제2의 성 *Le Deuxième sexe*』의 초기 한국어 번역과 수용 - 이 용호의 1955년, 1964년 번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젠더와 번역, 여성 지(知)의 형성과 변전』, 2012년

- 한국여성문학학회 가을학술대회 (2012년 10월 20일, 서강대학교) 자료집.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2) 『여성과 언어: 젠더와 번역 *Women and Language: Gender Issues in Translation*』,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12년 4월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자료집.
- Bogic, Anna (2009) *Rehabilitating Howard M. Parshley: A Socio- historical Study of the English Translation of Beauvoir's Le deuxième sexe, with Latour and Bourdieu*, MA thesis,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U of Ottawa.
- De Marco, Marcella (2012) *Audiovisual Translation Through a Gender Lens*. Amsterdam: Rodopi.
- Federici, Eleonora (ed.) (2011) *Translating Gender*. Bern: Peter Lang.
- Flotow, Louise von (1997) *Translation and gender. Translating in the 'Era of Feminism'*.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Flotow, Louise von (2010) 'Gender in translation', Yves Gambier &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1: 129-33.
- Flotow, Louise von (ed.) (2011) *Translating women*. Ottawa: U of Ottawa P.
- Leonardi, Vanessa (2007) *Gender and Ideology in Translation: Do Women and Men Translate Differently?* Bern: Peter Lang.
- Lotbinière-Harwood, Suzanne de (1991) *Re-belle et infidèle. La traduction comme pratique de réécriture au féminin*. Les éditions du remue-ménage / Women's Press.
- Santaemilia, José (ed.) (2005) *Gender, Sex and Translation. The Manipulation of Identities*. Manchester: St. Jerome.
- Simon, Sherry (1996) *Gender i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2. 분석대상 번역본
- 보-봐-르 (1955) 『제2의 성: 女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용호 역. 서울: 白潮書店 (Simone de Beauvoir, *Le Deuxième sexe* II, 1<sup>re</sup> partie).
- 시몬느 드 보부아르 (2009) 『제2의 성』, 이희영 옮김. 서울: 동서문화사 (Simone de Beauvoir, *Le Deuxième sexe*).

[Abstract]

**Translator's Gender and Translation of the Sexuality in the Korean  
Translations of *Le Deuxième sexe* by Simone de Beauvoir**

Yu, Mihyang · Park, Jungyun · Yi, Yeong-Houn  
(Korea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hether translating sexual expressions suggests different strategies for either male or female translators, whether there is any gender-associated struggle for rewriting the sexuality into different language. Actually, sex is probably one of the most intimate indications of identity, as it conjures up images of sexual activity, eroticism, pleasure, taboo, fantasies, desire, etc. Likewise, language is the most intimate way of expressing sex. Our work concerns *Le Deuxième sexe* of Simone de Beauvoir and its two Korean translations by Yongho Lee and Yeonghee Lee, male and female translator respectively. After all, we realized that the approaches to sexuality by two translators of gender difference may show the three dimensions of interesting divergence : women's body, sexual activity, homosexuality.

▶ Key Words: gender, sexuality, male translator, female translator, *Le Deuxième sexe*

유미향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miyawana@hanmail.net

관심분야: 문법교육, 교육과정, 번역과 젠더

박정윤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buppy0614@naver.com

관심분야: 영상번역, 팬번역, 번역과 젠더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erasme@korea.ac.kr

관심분야: 번역평가, 번역사회학, 번역과 젠더

논문투고일: 2012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4일